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오고운* · 김성봉**

< 차례 >

- I. 서론
- II.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 III. 다문화교육의 실제
- IV.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와 방향의 모색
- V. 결론

국문요약

한국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의 자녀 증가로 풍부한 다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회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2011년 현재 도내 체류 외국인인 6,300명을 넘어 지역사회가 구성원, 문화, 정체성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 실정이고, 다문화교육은 정부의 정책 사업 성격을 띠고 시행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다문화교육은 보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교육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해서는 현재의 이주민 대상의 기초적인 다문화교육에서 탈피,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보다 심화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의 제주지역 체류외국인 관련 통계, 그리고 지자체, 민간단체, 교육청, 각급학교,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196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이유로 국제이주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정보통신의 발전과 기존의 이민 사회, 그리고 이민사회의 연결망 생성은 국제이주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석현호, 2000; Stahl, 1995). 한국사회도 과거 단일민족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1980년대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1990년대의 도시와 농촌간의 심각한 인구 격차와 농촌의 노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한 국가 및 일부 지역사회의 특단의 노력들(김희정, 2007)은 농촌사회에서의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 변화(공영태·최성은, 2005; 홍경환, 2009)

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1994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난민 역시 우리 사회의 다양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단기의 국제이주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다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교육을 시행해 왔고(원숙연, 2008), 학교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 교육정책이 반영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인 경우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청정지역을 핵심역량으로 한 국제 자유도시, 국제회의도시, 세계 관광 명품도시를 꿈꾸는 제주도는 각종 국제회의 유치, 국제학교설립, 대단위 관광 상품 개발, 의료관광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교류 및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주에 대한 해외의 인지도를 높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도내의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다문화교육 역시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의 다문화지원기관, 학교 등에서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교육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정부주도의 정책적 측면에서 시작되어 각 부처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현황은 전국수준과의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다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교육은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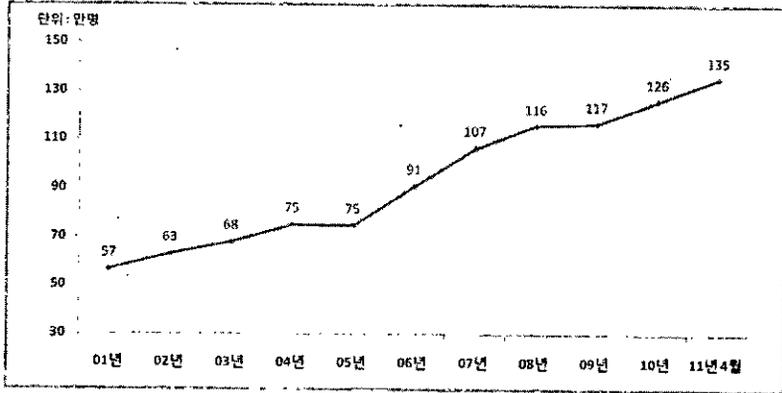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자료를 통해 전국수준과 제주지역의 다문화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실재를 점검한 후 제주도 다문화교육의 지역적 과제를 도출, 향후 제주지역에서 실시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교육이 지역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영역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1.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교육

한국사회의 다문화 상황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삼는 것은 체류외국인의 수이다. 외국인의 유입은 한국민과 쉽게 구별되는 인종과 민족, 언어, 종교 등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의 수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4월 30일 현재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135만을 넘고 있고, 이들의 출신국도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하여 30여 개국에 이른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4월호).

〈그림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1년 4월호>

국적,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의 다양성을 가진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또한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을 가져왔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국제결혼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등이 그것이고, 이 가정 자녀들의 성장에서 발생하는 고려점들은 우리 사회의 피해갈 수 없는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종이나 민족적인 차이와 차별로 인하여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종, 성, 언어, 계층 등의 구성원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서종남, 2010: 133쪽). 또한 박남수·정수권·서경석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이란 민족이나 인종, 성, 사회적 지위 등에서 비롯되는 각 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주류와 소수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고 가치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서로가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가르쳐주는 교육(2007: 218쪽)이다.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상황 즉,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화의 상호간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는 교육이기도 하다(배영주, 2010: 178쪽). Bennett 역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적 상황을 기반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그 가치를 평등의 실현에 두고 있다(Bennett, 김옥순 외 공역, 2009: 43쪽)고 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모형은 크게 차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모형,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나달숙, 2010; 윤창국, 2009). 차별배제 모형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대상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동화주의 모형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민자들은 교육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주류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응교육이 주를 이루게 된다. 다문화주의 모형의 교육 대상은 보다 포괄적이다. 소수집단에게만 집중된 교육이 아니라 주류집단에게도 교육이 확대되어 공동의 시민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보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의 흐름은 소수라기보다는 소수 집단을 포함한 '모두'를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다문화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포함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교육의 활동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 교육을 실현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평등교육의 실현에 대한 당위성을 그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다문화교육 지역화의 필요성

1) 체류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정부 정책 주도의 다문화정책은 지역이 다문화교육에 눈을 뜨게 하고, 정책의 시행에 있어 빠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낼 수 있었던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주도의 다문화교육이 각 지역에서도 동일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구체적인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여각 외, 2004: 26쪽). <표 1>은 등록 외국인의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대다수의 등록외국인의 거주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4월 말 현재 한국사회 전체 등록 외국인 960,201명 중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77,357명으로 이는 전체 등록 외국인의 60%에 해당한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등록외국인이 6,36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0.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려한다면 이 비율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거주 차이는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격차와 더불어 서울·경기 지역의 경제활동의 용이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이미 형성된 이주민 연결망의 작용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등록 외국인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의 시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김희정, 2007; 윤여탁, 2008)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다문화정책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표 1〉 등록 외국인의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960,201	278,422	33,188	298,935	13,497	25,257	45,490	20,681	22,593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37,637	60,119	6,360	17,214	21,113	50,884	13,874	14,937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1년 4월호>

다음의 <표 2>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09년도 출입국통계 연보에서 일부 지역을 발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자격별 외국인의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 충북, 충남, 경북과 경남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40%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남, 강원, 제주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각각 35.6%, 27.6%, 35.2%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8.8%와 9.6%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의 결혼이주자 비율은 10%를 상회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보다 결혼이주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율은 전남과 전북, 강원지역이 20%를 넘고, 제주지역이 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수도권지역에 수적으로 체류외국인이 집중되어 있으나 체류외국인의 자격은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도권에서는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방은 국제결혼이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유학생의 비율은 경기지역이 2.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강원과 제주지역이 비교적 높은 10%를 상회하고 있어 해당지역에서의 대응책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2010. 1. 1. 현재)

(단위: 명)

구분	총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외국인	혼인 귀화자	기타	
계	1,139,283	558,538	125,087	80,648	50,251	106,365	56,584	39,877	121,935
%	100	49.0	10.9	7.1	4.4	9.3	5.0	3.5	10.7
서울	336,221	158,589	29,455	22,944	27,549	44,761	11,668	22,241	19,014
%	100	47.2	8.8	6.8	8.2	13.3	3.5	6.6	5.7
경기	337,821	203,387	32,576	7,887	12,191	22,956	17,279	11,592	29,953
%	100	60.2	9.6	2.3	3.6	6.8	5.1	3.4	8.9
강원	19,041	5,248	3,034	2,707	689	1,688	1,470	305	3,900
%	100	27.6	15.9	14.2	3.6	8.9	7.7	1.6	20.5
충북	30,138	13,805	3,798	3,355	552	1,693	1,866	359	4,710
%	100	45.8	12.6	11.1	1.8	5.6	6.2	1.2	15.6
충남	48,874	23,015	6,033	6,147	707	2,508	2,748	763	6,953
%	100	47.1	12.3	12.6	1.4	5.1	5.6	1.6	14.2
전북	28,450	7,585	5,126	4,980	610	2,229	1,925	146	5,849
%	100	26.7	18.0	17.5	2.1	7.8	6.8	0.5	20.6
전남	31,305	11,153	5,760	2,722	317	1,518	2,185	197	7,453
%	100	35.6	18.4	8.7	1.0	4.8	7.0	0.6	23.8
경북	46,658	20,338	6,324	6,572	693	2,108	2,582	326	7,715
%	100	43.5	13.6	14.1	1.5	4.5	5.5	0.7	16.5
경남	66,800	37,696	7,724	2,405	696	5,398	3,110	511	9,260
%	100	56.4	11.6	3.6	1.0	8.1	4.7	0.8	13.9
제주	7,348	2,563	1,169	857	252	666	445	106	1,290
%	100	35.2	15.9	11.7	3.4	9.1	6.1	1.4	17.6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발췌 재구성>

2) 지역사회, 지역정체성과 시민성

지역사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지리적 공간으로서 같은 기후와 자연 생태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고, 동일한 역사와 문화 등의 사회생태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지역사회는 가족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나누며,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며, 크고 작은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통한 참여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실질적 삶의 공간이다. 지역사회는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남수는 지역사회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의 사상 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둘째는 학습자의 생활 경험 활용이 가능하고, 셋째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활동의 가치나 의미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남수, 2007).

이러한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일체감은 지역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 주민이라는 집단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 경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은 다양한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동질성을 느끼며,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질, 특유한 고유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의 지역정체성은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 역사, 독특한 언어적 배경, 의복, 주거, 제사, 신앙 등의 생활·문화양식 등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같은 지역정체성을 갖는 구성원들은 윤리적, 정치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갖는다(김항원, 1998). 그러나 지역정체성이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황석규는 제주인의 특성을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과 한국인들이 지닌 보편적 특성인 선택적 차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배타성이란 외지인들이 제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사고보다는 제주인 스스로 외지인들을 평가하면서 형성된 것이고, 제주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제주인 스스로 살아가려고 형성된 내재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차별성은 제주인의 문화에서 능동적으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한국적 사고가 교육, 언론, 소문 등에 의거해서 수동적으로 내재화된 성향이라고 하였다(황석규, 2009). 이러한 제주의 폐쇄적 공동체 문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제주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독특한 제주어 역시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김민호, 2010)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불어넣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오히려 타지역 또는 이주민에 대한 폐쇄성과 배타성의 부정적 측면을 갖는 이중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한계에 대한 극복은 시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민성은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법적인 지위를 뜻하는 수동적 개념이었으나, 공동체에 대한 능동적 참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변화해가고 있다. 특히 인종, 민족, 종교, 언어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의 시민성은 지역과 국가, 국가 간 연합수준, 세계수준으로 구분되고, 다중적인 성격을 갖는다(변종현, 2006). 이 중 지역의 시민성은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자발적 참여를 말하며, 세계 시민성은 그 다중적 특징으로 인하여 특정한 규범적 행위와 관련된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타인의 고려와 같은 원리적 가치와 가치 자체에 헌신하려는 가치 즉, 일종의 초가치(meta-value), 그리고 그러한 가치와 관련해서 자신을 판단하는 반성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김왕근,

1999: 46쪽).

다문화교육에서의 지역정체성과 시민성은 Banks와 Benett에 의해서도 강조된 바 있다. Banks는 다문화교육을 사회분열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민주시민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 소수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교육(Banks, 2008)이라 했고, Benett은 다문화교육의 가치에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Benett, 2007).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관련 특정 집단으로 보고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어 습득, 기초 소양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은 이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음으로써 이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정책(김민호, 2010)과 다문화교육을 행정적 측면에서 시행해 왔던 지자체의 태도, 사회구성원들의 긍정적이지 못한 다문화 수용 태도(오성배, 2010) 등에 있어 보인다. 이것은 또한 현재까지의 다문화교육이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표 3> 다문화교육 지역화 모형과 중앙집권적 모형의 비교

구분	지역화 모형	중앙집권적 모형
가치 체계	공동선 생활세계의 탈식민화	국가의 사회통합 요구 시장의 노동력 확보
추진 주체	시민사회 중심	국가와 시장 중심
교육 대상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다문화 관련 특정 집단
교육 내용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역할	국민, 세계시민의 정체성
교육 방법	교실 안팎	교실 내 수업
네트워킹	각 단체의 잠재 역량 결집	각 기관의 부족한 역량 보충

<출처: 김민호(2010), 67쪽>

위의 <표 3>은 다문화교육 지역화 모형과 중앙집권적 모형을 비교한 것이다. 두 모형은 가치 체계와 추진 주체, 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네트워킹에 있어 중앙집권적 교육 모형과는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에서의 중앙집권적 모형은 국가가 주도하여 다문화 관련 특정 집단을 국민으로 통합시키고자 정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지역화 모형은 대상과 내용, 방법에 있어 중앙집권적 모형보다는 지역 중심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기존의 다문화교육이 중앙집권적인 다문화정책에서 시행되는 다문화교육에서 벗어나 인종, 민족, 언어적 차이를 갖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유학생 등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여 지역 적응과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며, 그 내용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정체성, 시민성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함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문화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구성원들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다문화교육의 실제

1.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한국사회 다문화교육은 이주해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주도(김희정, 2007: 70쪽)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대책」,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의 정부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2007년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발표되면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교육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주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에 100여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가이드 북’을 발간하여 전국 등록 기관의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주된 교육 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직업교육 등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교과과정 중에 다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

육을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계획」을 통해 학교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한국어 교육,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발간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여 초등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독려하고, 다문화 교육 멘토링 사업을 일부 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교육지원 차원에서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를 확보하고 교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한 해에 정부부처의 다문화교육 사업은 위의 3개 부처를 포함한 8개 부처에서 41개의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이 계획되었다(서범석, 2010: 129쪽).

이와 같이 한국사회 정부의 각 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살펴보면 그 목적은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자녀의 성장 환경 조성, 다문화 이해 증진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정부 부처별 다문화 교육정책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 시행되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육의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사회와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주로 하는 적응교육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은 중앙집권적 모형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실제

제주도가 다문화정책, 다문화교육에 무관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부 정책사업의 시행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에서 나타난 체류외국인 수의 증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있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2,178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의 수는 2007년 4,130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5,000명을 넘어섰다. 내외국인의 인구 증가율에 있어서도 과거 5년간의 제주지역의 내국인 성장 비율은 0.23%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의 성장 비율은 24.60% 이르고 있다.

<표 4> 제주도 내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내·외국인 등록 인구 수					전년대비						
	연도	합계	내국인	CAGR	외국인	CAGR	증감인원			증감비율(%)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외국인
2005	559,747	557,569		2,178		2,512	2,207	305	0.5	0.4	16.3	
2006	561,695	558,496		3,199		1,948	927	1,021	0.3	0.2	46.9	
2007	563,388	559,258	0.23%	4,130	24.60%	1,693	762	931	0.3	0.1	29.1	
2008	565,520	560,618		4,902		2,132	1,360	772	0.4	0.2	18.7	
2009	567,913	562,663		5,250		2,393	2,044	349	0.4	0.4	6.6	

출처: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10. 1.)

註: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제주지역의 결혼 건수는 <표 5>에서와 같이 증가의 폭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국제결혼 건수는 2001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매 해 300건을 넘기며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체류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에서 보았듯이 외국인유학생은 타 지역에 비해 제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6>은 연도별 외국인유학생 유입 수의 추이를 살펴 본 표이다.

<표 5> 연도별 제주도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결혼	3,708	3,574	3,379	3,325	3,382	3,576	3,495	3,445	3,279
국제결혼	173	190	294	421	327	379	378	434	39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2010) 16쪽

<표 6> 연도별 제주도 외국인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유학생	218	391	532	723	857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08-2010)

<표 7> 연도별 제주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지역	과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	초	5,332	6,795	11,444	15,804	20,632
	중	583	924	1,588	2,213	2,987
	고	206	279	413	761	1,125
	소계	6,121	7,998	13,445	18,778	24,745
제주도	초	20	60	112	158	196
	중	2	4	16	23	33
	고	1	5	3	7	14
	소계	23	69	131	188	243

출처: 2009년도 제주교육통계연보(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0. 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교육과학기술부, 2010. 5.)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2005년 23명에서 2009년 243명으로 증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도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표 7>에서와 같이 제주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교육을 제시하게 되었다. 제주지역의 다문화교육은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제안된 형태에서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황석규, 2009). 제주도 다문화교육 실행은 2007년의 “외국인거주지원조례”와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힘입어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다문화교육이 활발해졌다. 제주도교육청 또한 이 조례들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21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의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과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살펴볼 때, 제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 법률, 제주지역의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이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 이해 증진의 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외국인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외국인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에는 일부주민자치센터와 민간단체, 외국인유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애월읍, 구좌읍, 일도2동, 노형동 등 총 5개소)에서는 관내의 결혼외국인노동자, 결혼 이민자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교실, 요리교실 등

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2011년 5월 현재 비영리사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제주이주민센터, 국제사회가정문화원,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등 12개 사업소(제주도청 홈페이지)로 각각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다문화가정의 생활문화 교육, 문화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대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 내의 대학교와 전문대학들에서도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교육, 외국인유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8〉 외국인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내용

다문화교육대상	다문화교육 내용	다문화교육기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육, 음식문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다문화가정의 생활문화 교육, 문화체험 교육	민간단체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교육 외국인유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대학

출처: 제주도청 양성평등정책과, 행정기획과,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다문화교재 지원, 방과후 지도활동, 개별상담과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생과의 멘토링 연계, 문화체험활동, 한국어 교육, 방과후 교실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교사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등을 나누어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표 9〉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내용

다문화교육기관	다문화교육 내용	교육대상
각급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생활지도·상담	다문화가정 자녀
민간단체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육	
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지원	

출처: 제주도교육청 다문화연합회 자료집(2009)

3)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

아래의 <표 10>은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시된 교육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서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다루었다. 2007년 2월에 교육과정에 다문화이해 교육 요소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와 도덕 등의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고, 혼혈아와 입양아 문제를 예제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교과서는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양영자, 2007: 전우홍, 2010)하여 2010년 개정 교과서부터 도덕과 사회 교과서에서 다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강사들을 활용해 학생들 대상의 다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 10〉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내용

다문화교육기관	다문화교육 내용	교육대상
각급학교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가 '법교과'의 주제로 선정됨 2010년 개정 교과서부터 도덕과 사회에 다문화 관련 내용 수록	각급학교 학생
제주도교육청	다문화연찬회 원격교육, 집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	현직교사
교육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초등예비교사
민간단체	문화축제 다문화강사	일반 주민 각급학교 학생

* 출처: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제주도교육청은 또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4월 「다문화국제이해교육연찬회」와 2009년 5월 「다문화교육 관련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과 2010년도에 일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2년의 기간(2009.3-2011.2)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백록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에 다문화이해교육 요소들을 반영하고, 학교 자체에서 교직원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연수를 2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는 교육대학에서 초등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대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멘토링 연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민간단체와 도청이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축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행사의 참여를 통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IV.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1) 지역사회와 지역정체성, 시민성 교육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

제주지역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들에게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다문화교육은 제주지역에서 자생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국가의 정책과 제주지역의 사회적 상황이 맞닿으면서 정부주도형 모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의 한국어, 생활문화 교육, 기초 직업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아직은 지역사회의 내용과 지역정체성, 시민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은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하는 교육이 되었고 소수인종, 소수민족,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교육 혹은 소수자 보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지역의 장기 체류외국인들에 대한 낮은 배려

제주지역 체류 외국인은 전국의 수준과 비교해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보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 추이가 높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에서 용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행정의 용이성과 결혼이주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와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주노동자나 일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학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 비해 거주 비율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한국어와 대학수업 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교육은 관광체험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유학생들 역시 지역에서 4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 다문화 교육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대상을 선정하고 학습자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모형이 현재의 중앙집권적 모형에서 지역화 모형으로의 변화가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지역사회와 연계된 참여 프로그램 부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육, 음식문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고, 장소는 교실에 한정되어 있거나 개인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는 교육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우며, 지역사회의 정체성, 나아가서 시민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 언어와 생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으로서의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특성을 알게 하고, 교실 밖과의 연관성을 통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각을 전환시키고, 이들의 지역사회의 정체성, 시민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이미 우리 교육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4)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 언어, 의복, 주거, 제사, 신앙 등의 생활·문화양식 등이 독특하며, 지역주민들은 강한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배타성은 제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교육과정에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학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현직 교원, 초등 예비교사에 대해서만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명절을 전후로 하여 열리는 행사 위주의 체험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다문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모형의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이해교육에 관심이 적은 이유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향

이상에서 제시된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들은 외국인 이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적응을 방해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막고 있어 결국,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수준에서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다문화교육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지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차원에서 조직되었다면 이제 다문화교육은 행정적 조치로서의 개념에서 확대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포용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부터의 다문화교육으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 정립은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목적,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상은 일부 소수집단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의 다양한 소수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로, 목적은 소수집단의 지역 적응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선 추구로, 내용은 구성원들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의 이해와 참여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과 체류외국인주민과의 상호소통의 기회를 열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강사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 기회는 많지 않다.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수자와 지역 주민 양 측에 소통의 기회를 주어 소수자들에게는 지역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다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평생교육단체와의 연결에 있어 행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체류외국인이주민을 위한 교육은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이해교육은 양적으로 확대시켜 적응교육과 이해교육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현재의 교육은 기초적인 한국어와 보편적인 생활문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주 초기의 교육으로는 타당한 교육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는 내용적 측면의 심화학습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양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심화, 중등예비교사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이해 강좌 개설,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이해강좌의 확대, 그리고 이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V. 결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증가로 한국이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에서 다양한 요소를 가진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다문화 집단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 해야 함을 알고 있다. 현재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정책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외국인들의 지역사회의 이해를 통한 적용과 정착에 대한 교육에는 관심이 적었다. 제주의 경우도 지역사회만의 독특한 지역적, 언어적,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체류외국인의 수, 비율, 자격도 타 지역과는 다른 비율,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지역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와 지역정체성, 시민성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 특정 집단의 거주 외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 대한 적은 배려,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 등이 다문화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의 체류외국인의 적응, 정착을 돕고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혀 지역구성원들의 소통과 지역 발전을 얻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수준에서의 다문화교육 개념 재정립, 둘째,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기존의 다문화교육 심화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이해교육의 양적 확대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제주지역의 다문화교육을 반성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통계와 자료조사에 기초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교육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시민단체와의 협조, 또한 정책적인 문제와 법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영태·최성은(2005), 이공계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 62.
- 김민호(2010),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모형과 추진전략-제주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 제26권 제2호.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28호.
-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 박남수·정수권·서경석(2007), 초등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세계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교육연구』 제14권 제4호.
- 배영주(2009),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새 구상, 『평생학습사』 제5권 제1호.
- 변종현(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의 가능성, 『윤리교육연구』 제10호.
- 서범석(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석현호(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23권 제2호.
- 오성배(2010), 다문화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2호.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 윤여각·이희수·양병찬(2004), 『지역사회교육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여탁(2008), 다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실과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제22호.
- 윤창국(2009), 다문화사회 담론 및 정책 분석을 통해 본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4호.

- 홍경완(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제약 연구, 『관광연구』 제24권 제2호.
- 황석규(2010),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담라문화』 제35호.
- Banks James.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모경환 · 최충옥 · 김명정 · 임정수 공역(2008). 『다문화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ennett Christine I.(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김옥순 외 공역(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Charles W. Stahl(1995), "Theorie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Overview",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4(2-3).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통계연보.
- 제주도(20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 제주도교육청(2009), 다문화연찬회.
- 제주도교육청(2010), 2009년도 제주교육통계연보.
- 제주도청(2010), 200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08), 2007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09), 2008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0), 2009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1), 2011년 4월 통계월보.

제주대학교 www.jejunu.ac.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Jeju Island

Oh, Ko-Woon* · Kim, Sung-Bong**

Korea has been changing to a society with a wealth of multi-cultural elements due to increase of foreign workers, married immigrants, foreign stu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past 10 years. Such various changes in social members, culture and identity are shown in Jeju Island as well with over 6300 of residential foreigners as of 2011. However, systematic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on the multi-cultural state of Jeju Island were started not before long and current education on the multiculturalism takes on political nature of government.

Centralized curriculum on the multiculturalism mainly concentrates on general contents, subsequently requiring efforts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to the education. To help immigrants settle down while boosting understanding of local community about multiculturalism, the education targeting immigrants should take a step forward from the basic level to intensified level in terms of its content and method. Also, the education should be localiz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local residents. Given the fact, this study analyzed relevant problems and discussed the solutions so a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Jeju Island by researching statistical data on the residential foreigner in Jeju Island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private organizations, education offices, schools and universities.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localiz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교신 : 김성봉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E-mail : edutopia@jejunu.ac.kr 전화 : 064-754-2169)

논문투고일 2011. 06. 20.

심사완료일 2011. 07. 27.

게재확정일 2011. 08. 17.